

설 명절 추모 가정예배 순서

주후 2024. 2. 10(토) 아침

사회 | 담당자

목 도 고 _____ 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 께

찬 송 _____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가 559장) _____ 다 함 께

기 도 _____ 가 족 중

성 경 봉 독 _____ 히브리서 11:13~16 _____ 가 족 중

추모의 말씀 _____ 더 나은 본향 _____ 사 회 자

찬 송 _____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_____ 다 함 께

추 모 사 _____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_____ 가 족 중

기 도 _____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_____ 다 함 께

성경말씀 | 히브리서 11:13~16

-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 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13절)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개념을 통합한 것이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 땅을 순례한 앞서 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순례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례자들의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고백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하늘 본향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 된 성입니다.

본문 16절 마지막 대목에 보면 이들 순례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에 대한 여러 별명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완성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성은 하늘 백성들의 본향, 천성 혹은 시온성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2. 우리는 이 땅의 본향보다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합니다.

본문 15절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본향은 이 세상 고향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뿌리가 되는 고향의 향수를 안고 살아갑니다. 고향은 마음의 쉼터이고 꿈 터입니다. 그런데 하늘 고향은 그보다 더 좋은 영혼의 쉼터이고 꿈 터입니다.

3. 이 땅의 순례 길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이런 순례자들은 모두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순례자 혹은 나그네들은 지나가는 길에 너무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가 지나치는 길에 야망이나 집념을 갖는다면 그의 순례 길은 지체되거나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례자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라고 말합니다.

마무리 말씀: 우리보다 앞서 하늘 본향에 가신 이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에서 우리의 선배 순례자들을 만나는 날, 우리도 부끄럼 없이 당신들을 따라 믿음으로 순례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